

A silhouette of a cross on a cliff against a sunset sky. The cross is positioned at the top left of the cliff. The sky is filled with horizontal streaks of light, suggesting a sunset or sunrise. The cliff is dark and jagged, with the cross standing prominently on its peak. The overall scene is serene and contemplative.

오늘의 말씀

Scripture reading

단 6:10



단 6:10

새번역 성경

단 6:10 다니엘은,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,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, 다락방으로 올라갔다.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. 그는 늘 하듯이,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, 감사를 드렸다.

설교

“그는 늘 하듯이”



주님 품 안에서...
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요시아

여호아하스

**여호야김 – B.C. 605년 1차
바벨론 포로**

단 6:3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,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.

단 6:10 다니엘이 이 조서에
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
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
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**창**
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
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
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

단 6:22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,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.

단 6:24 왕이 명령을 내려서, 다니엘을 험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,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니,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,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.

**1. 다니엘의 삶의 기준을 배워야
합니다.**

벨드사살 –

**“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
것이다”**

1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, 포로로 잡혀 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,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.

2 이 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.

3 이 편지는,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.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.

**4 "나 만군의 주, 이스라엘의
하나님이 말한다. 내가 예루살
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
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.**

**5 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
착하여라. 과수원도 만들고 그
열매도 따 먹어라.**

6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,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,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. 너희가 그 곳에서 번성하여,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.

7 또 너희는,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,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. 그 성읍이 평안해야,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.

**8 나 만군의 주, 이스라엘의 하나님
님이 분명히 말한다. 너희는 지금
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
속지 말고, 점쟁이들에게도 속지
말고,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
이듣지 말아라.**

**9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
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
을 뿐이다.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
이 아니다. 나 주의 말이다.**

**2. 다니엘의 삶의 원동력을
배워야 합니다.**

단 6:3 (개정)

**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
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
씩**

**단 3:17 불 속에 던져져도, 임
금님,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
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
속에서 구해 주시고, 임금님의
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.**